



경제동향



요약

생산 제조업지수/재고지수

소비 대형소매점 판매액

고용 경제활동인구/취업자/실업률·고용률

물가 소비자물가/신선식품

부동산 주택매매가격/주택전세가격

금융 가계대출/개인파산/신용보증

수출입 수출입액/품목별 수출입/국가별 수출입

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

장윤선 연구원 changys@si.re.kr

최윤진 연구원 erdene@si.re.kr

경제동향 | 요약

요약 | 11월 서울의 경제동향



생산

- 서울의 11월 제조업생산지수는 107.5로 전년 동월 대비 3.5% 증가
- 11월 제조업 출하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7.9% 증가, 재고지수는 16.7% 감소하여 회복/상승 국면을 시사



소비

- 서울의 1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 3,401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.3% 증가하였으며, 전국(6조 9,133억 원)의 33.8%
- 11월 백화점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2.7%, 대형마트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6.2% 증가하여 전반적 소비 증가



고용

- 서울의 11월 취업자는 516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6천 명(-0.7%) 감소
- 서울의 11월 고용률은 60.3%로 전년 동월 대비 0.6%p 하락, 실업률은 3.6%로 전년 동월 대비 0.9%p 하락



물가

- 2015년 11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1.4(2010년=100.0)로 전년 동월 대비 1.7% 소폭 상승하여 저물가 기조 지속
- 신선식품물가지수(5.4%), 서비스물가지수(2.9%), 생활물가지수(1.0%), 상품물가지수(0.5%)는 모두 상승



부동산

- 서울의 11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재건축 이주 수요와 매물부족에 따른 매도호가 상승, 거주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아파트 매매수요 증가로 전월 대비 0.50% 상승한 104.2 기록
- 서울의 11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세물량 부족과 저금리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0.66% 상승한 118.7 기록



금융

- 서울의 11월 전체 대출금 잔액은 634조 5,862억 원으로 전월 대비 0.9% 증가
- 서울의 11월 은행 가계대출은 203조 491억 원으로 전월 대비 1.0% 증가
- 서울의 11월 보증금액은 1,027억 원, 보증지원건수는 4,073건으로 전월 대비 각각 34.6%, 31.5% 감소
- 도·소매업, 음식·숙박업, 서비스업, 제조업 보증금액이 전월 대비 각각 34.2%, 33.5%, 37.8%, 37.9%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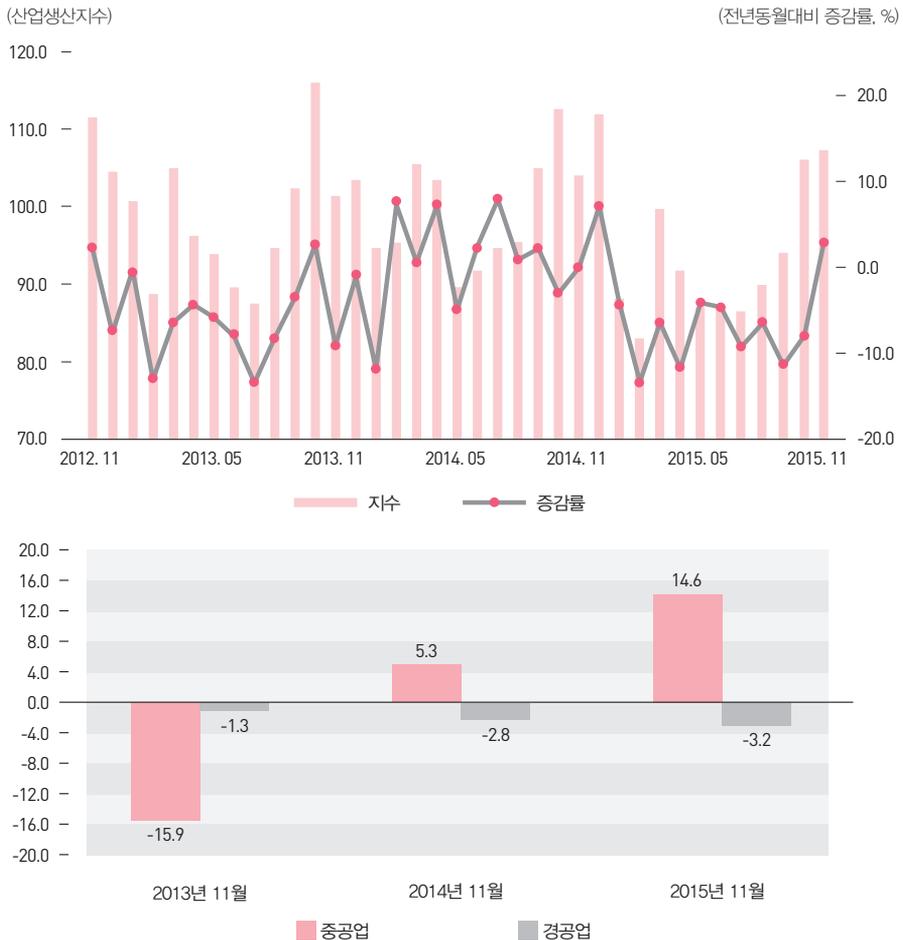
수출입

- 서울의 11월 수출액은 50.2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4.1% 증가, 품목별로는 무선통신기기,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
- 서울의 11월 수입액은 103.4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8.4% 감소, 품목별로는 원유,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

생산

서울의 11월 제조업생산지수는 107.5(2010=100)로 전년 동월 대비 3.5% 증가

- 서울의 제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.5% 증가하여 2015년 들어서 첫 플러스 성장
- 중공업 부문은 전년 동월 대비 14.6%로 크게 증가했으나, 경공업은 -3.2%로 감소
- 부문별로 전년 동월 대비 전자부품·컴퓨터·영상음향통신(33.6%), 섬유제품(23.2%), 의료정밀광학(19.9%)등은 증가한 반면 가죽 및 신발(-35.1%), 금속가공(-27.9%) 등은 감소



자료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(2010=10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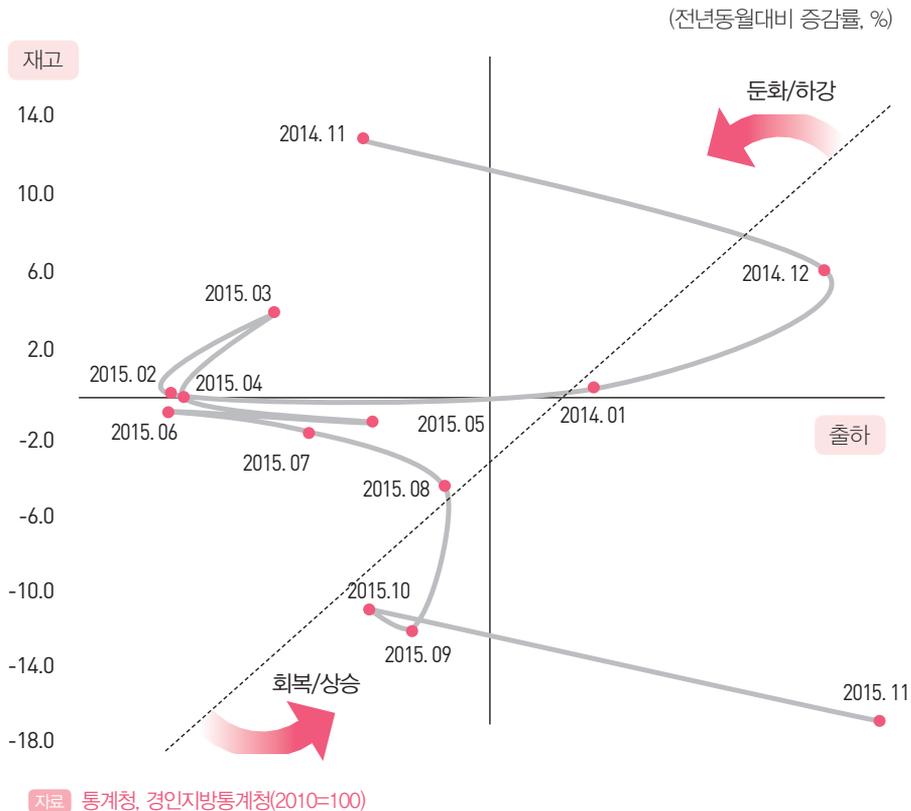
〈그림〉 산업생산 추이 및 증감률

경제동향 | 생산

출하·재고 순환

서울의 11월 제조업 출하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7.9% 증가, 재고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6.7% 감소하여 회복/상승 국면을 시사

- 서울의 11월 출하지수는 109.7(2010=100.0)로 전년 동월 대비 7.9% 증가
- 서울의 11월 재고지수는 111.2(2010=100.0)로 전년 동월 대비 16.7%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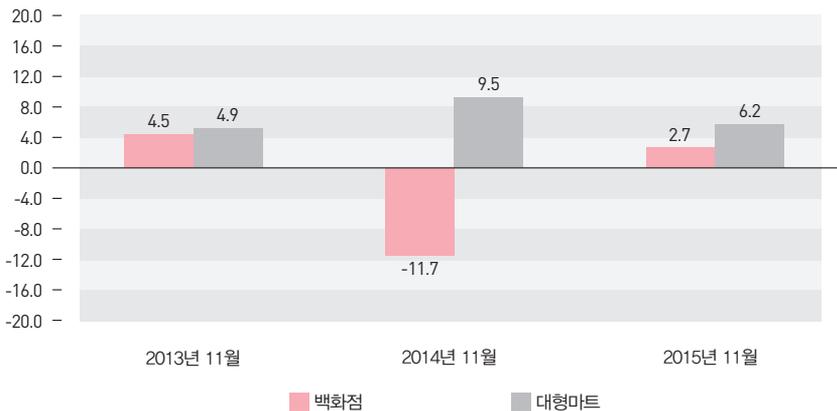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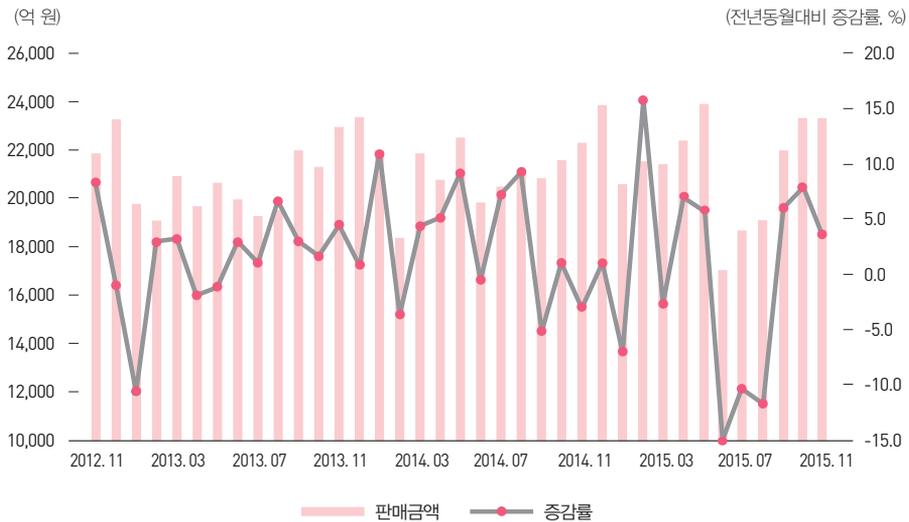


〈그림〉 서울의 출하·재고 증감률 추이

소비

서울의 1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4.3% 증가

- 서울의 1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 3,401억 원으로 전국(6조 9,133억 원)의 33.8%이며 전년 동월 대비 4.3% 증가
- 11월 백화점 판매액은 1조 2,301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.7% 증가하였고 대형마트 판매액은 1조 1,1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.2% 증가하여 전반적 소비 증가



자료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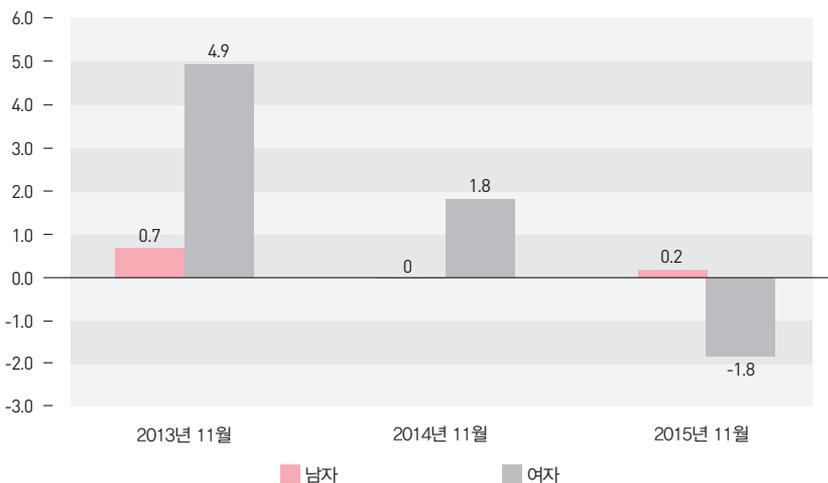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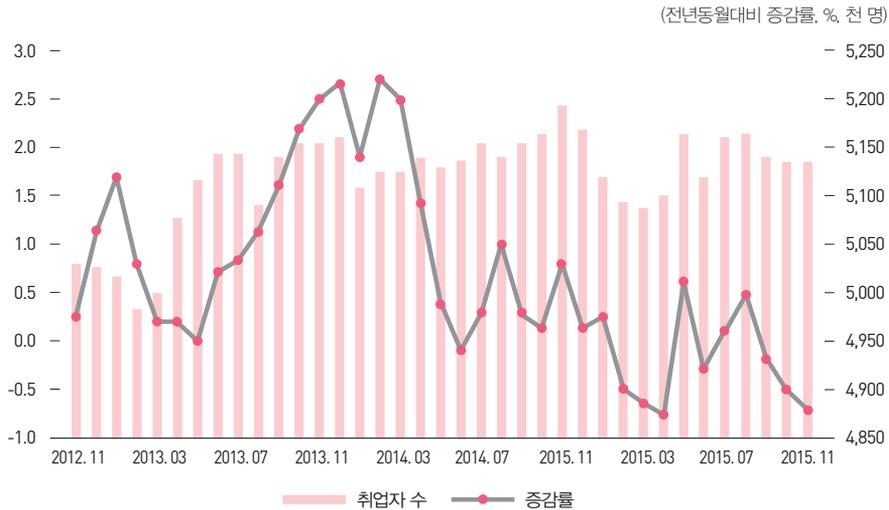
(그림)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및 증감률

경제동향 | 고용

취업자

서울의 11월 취업자 수는 516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.7% 감소

- 서울의 11월 취업자는 516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6천 명(-0.7%) 감소
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287만 6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천 명(0.2%) 증가, 여자는 228만 4천 명으로 4만 2천 명(-1.8%)이 감소
- 산업별로 보면, 사업·개인·공공서비스업이 1만 8천 명(0.9%), 전기·운수·통신·금융업이 1만 7천 명(2.1%), 제조업이 1만 명(2.1%) 증가한 반면 도소매·숙박음식업이 6만 2천 명(-4.2%), 건설업이 2만 6천 명(-7.5%)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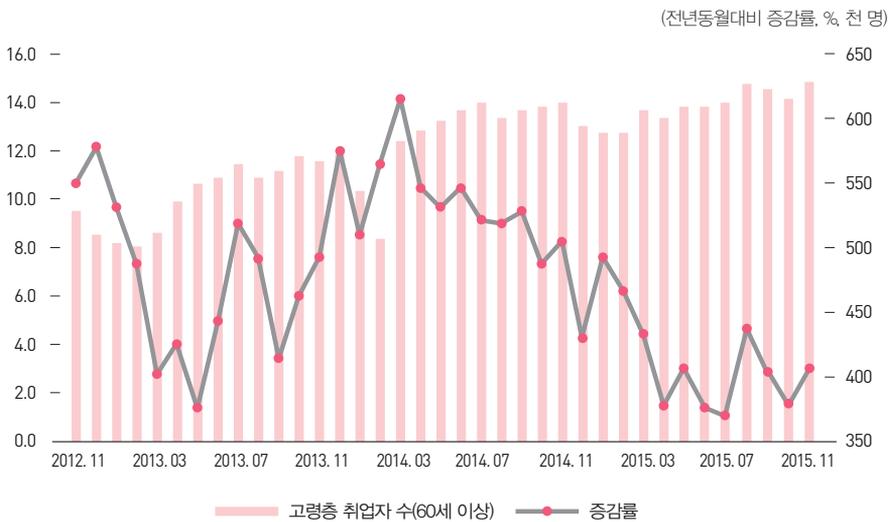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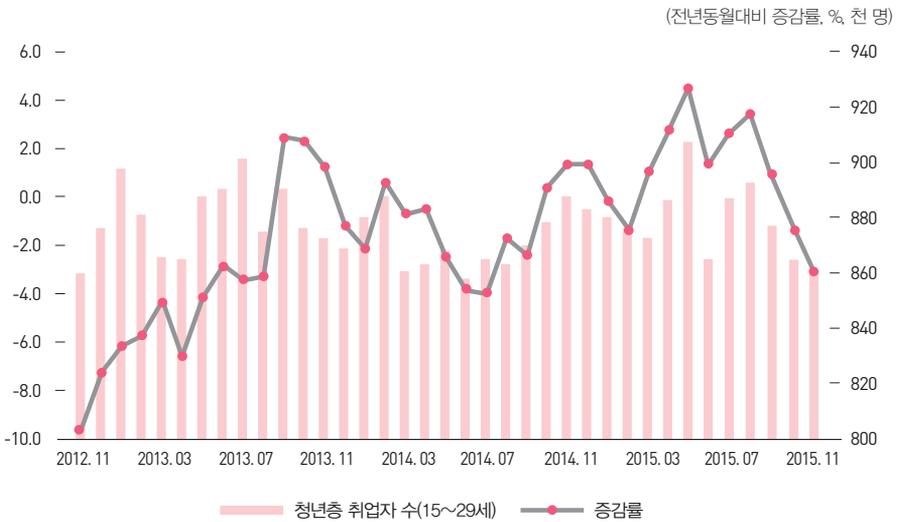


자료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〈그림〉 서울의 월별 취업자 추이 및 증감률

서울의 11월 청년층(15세~29세)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반면, 고령층(60세 이상)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가

- 서울의 11월 청년층(15세~29세) 취업자 수는 86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.0% 감소
- 서울의 11월 고령층(60세 이상) 취업자는 63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.0% 증가하였으나 2014년도에 비해서는 증가세 둔화



자료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〈그림〉 서울의 월별 청년층 및 고령층 취업자 추이

경제동향 | 고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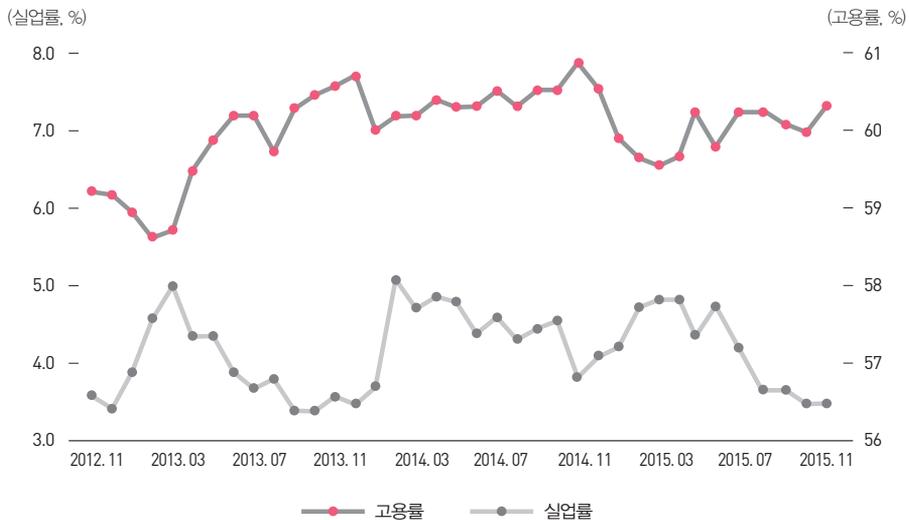
고용률 및 실업률

서울의 11월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, 전국 보다 낮은 수준

- 서울의 11월 고용률은 60.3%으로 전년 동월 대비 0.6%p 감소하였고 전국(60.8%) 보다 낮은 수준
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70.2%로 전년 동월 대비 보합, 여자는 51.2%로 전년 동월 대비 1.1%p 하락

서울의 11월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소폭 감소했으며, 전국 대비 높은 수준

- 서울의 11월 실업자는 19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3천 명(-6.4%) 감소
- 실업률은 3.6%로 전년 동월 대비 0.2%p 하락
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3.8%로 전년 동월 대비 0.3%p, 여자는 3.4%로 전년 동월 대비 0.1%p 각각 하락
- 2015년 11월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(3.1%)에 비하여 0.5%p 높은 수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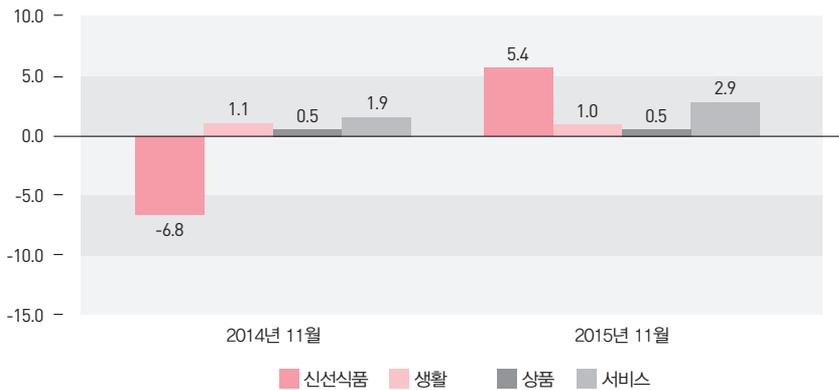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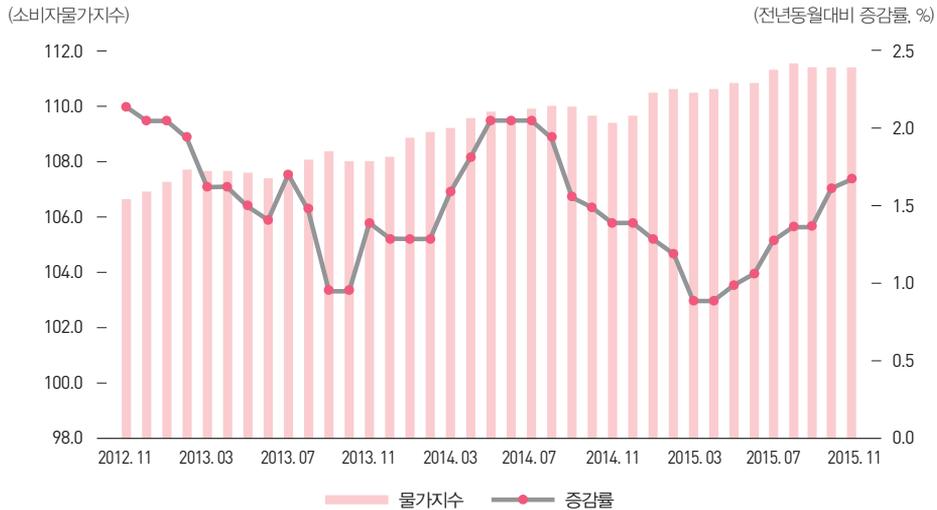
자료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〈그림〉 서울 실업률, 고용률 추이

물가

서울의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.7% 상승에 그쳐 저물가 기조 지속

- 11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1.4(2010년=100.0)로 전년 동월 대비 1.7% 상승
- 전년 동월 대비 주요 등락 부문을 보면, 신선식품물가지수(5.4%), 서비스물가지수(2.9%), 생활물가지수(1.0%), 상품물가지수(0.5%) 모두 상승



자료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(2010=100)

〈그림〉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및 동향

경제동향 | 부동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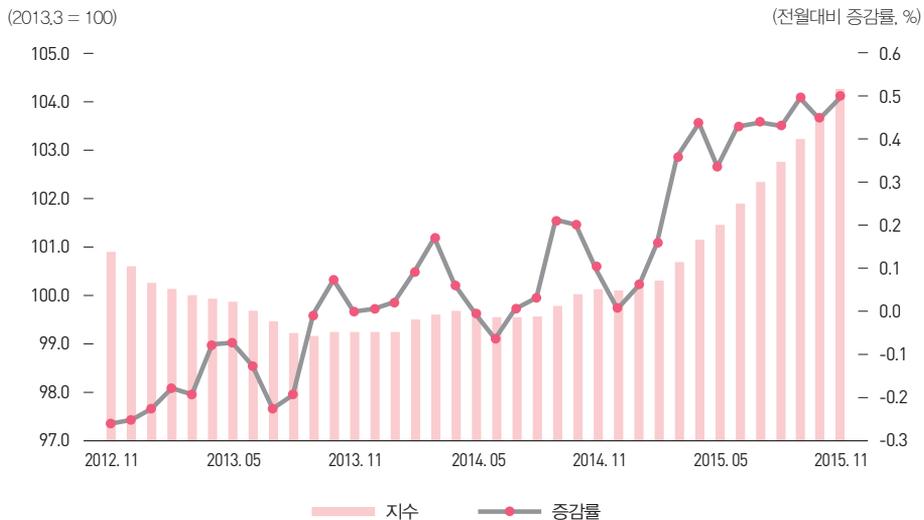
주택매매가격

서울의 11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

- 서울의 11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4.2로 전월 대비 0.50% 상승. 한강이남지역(0.52%)은 재건축 이주 수요와 매물부족에 따른 매도호가 상승으로 상승세를 지속. 한강이북지역(0.48%)은 거주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
 - 주요 상승지역 : 노원구(0.76%), 성북구(0.74%), 동대문구(0.74%), 영등포구(0.74%)

전국의 11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

- 전국의 11월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07.0로 전월 대비 0.43% 상승.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 전환 수요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에 따른 매물부족으로 상승세가 확대됨. 수도권(0.44%), 5개 광역시(0.50%), 기타지방(0.30%) 모두 전월 대비 상승폭이 확대



자료 국민은행연구소

〈그림〉 서울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와 증감률 추이

서울의 11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, 거래건수는 전월 대비 감소

- 아파트 평당 평균 매매가격*(1,758만 원)은 전월 대비 0.2% 상승, 거래건수(9,923건)는 14.2% 감소
- 평당 매매가격의 주요 상승지역은 양천구(1.70%), 서대문구(1.69%)인 반면, 송파구(-1.73%)에서는 하락. 아파트 매매 거래건수는 노원구(972건), 송파구(709건), 강서구(625건) 순임

자료 부동산11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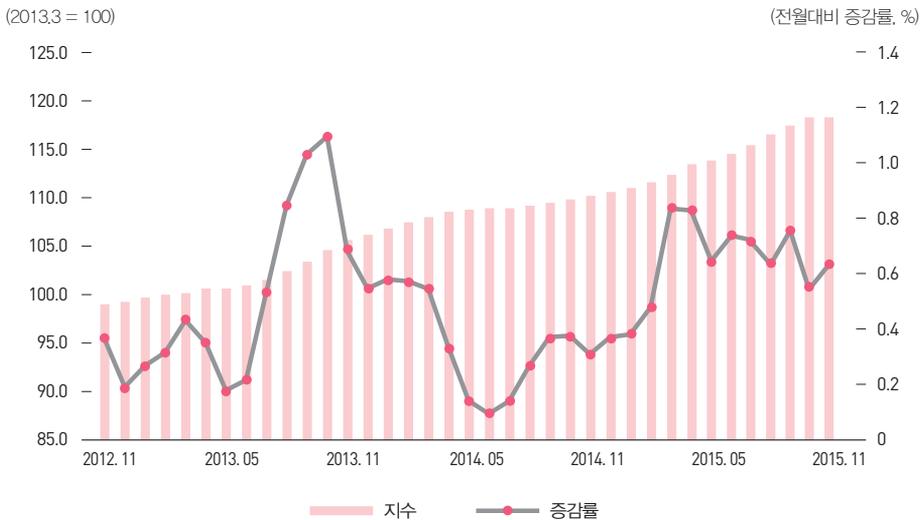
주택전세가격

서울의 11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

- 서울의 11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118.7로 전월 대비 0.66% 상승. 한강이남지역(0.68%)에서는 영등포구와 양천구를 중심으로 전세물량 부족과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확대됨. 한강이북지역(0.63%)은 중소형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, 동대문구를 중심으로 상승
- 주요 상승지역: 영등포구(1.24%), 양천구(1.11%), 노원구(0.94), 동대문구(0.91%)

전국의 11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

- 전국의 11월 주택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.50% 상승한 114.5를 기록. 전세의 월세전환 급증에 따른 전세물량 부족이 계속되면서 상승세가 지속됨. 수도권(0.61%), 5개 광역시(0.38%), 기타 지방(0.32%) 모두 전월 대비 상승폭이 확대



자료 국민은행연구소

(그림) 서울 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와 증감률 추이

서울의 11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, 거래건수는 전월 대비 감소

- 아파트 평당 평균 전세가격*(1,226만 원)은 전월 대비 1.1% 증가, 전세거래건수(8,331건)는 12.6% 감소
- 아파트 전세가격의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양천구(3.0%)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. 전세거래건수는 강남구(804건), 노원구(802건), 송파구(622건) 순임

자료 부동산114

경제동향 | 금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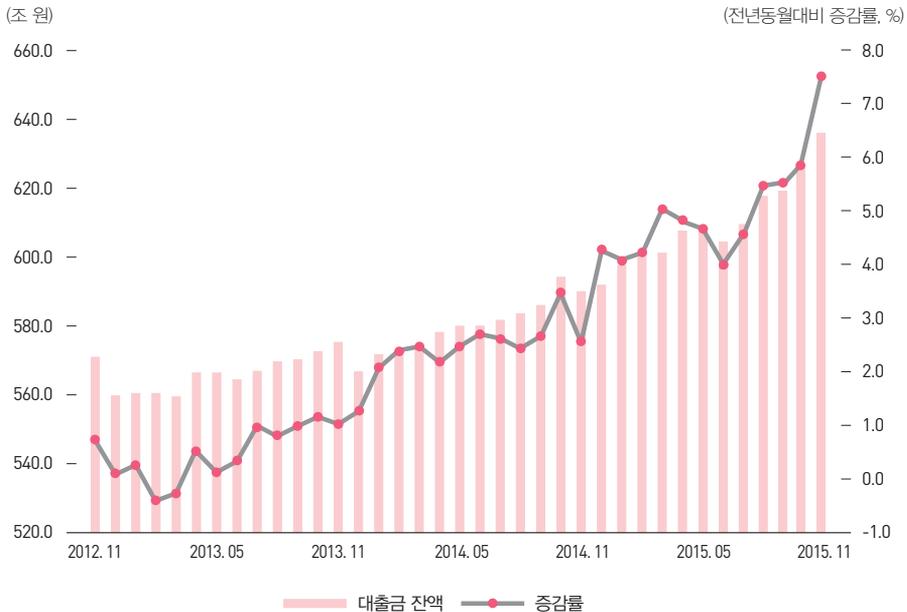
가계대출

11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 대비 증가

- 전체 대출금 잔액(634조 5,862억 원)은 전월 대비 0.9%, 전년 동월 대비 7.5% 증가
- 그 중 예금은행(527조 9,683억 원)과 비예금은행(106조 6,179억 원)은 전월 대비 각각 0.8%, 1.6% 증가하였고, 전년 동월 대비 각각 7.6%, 7.2% 증가

11월 기준 전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 대비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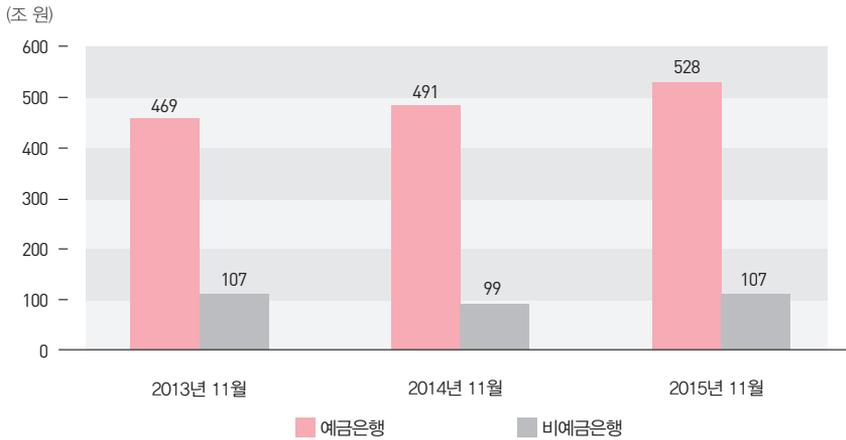
- 전체 대출금 잔액(1,751조 9,238억 원)은 전월 대비 0.9%, 전년 동월 대비 7.9% 증가
- 그 중 예금은행(1,344조 1,681억 원)과 비예금은행(407조 7,557억 원)은 전월 대비 각각 0.8%, 1.2% 증가하였고, 전년 동월 대비 각각 8.0%, 7.6% 증가



주 말잔 금액,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(한국수출입은행, 종합금융회사, 신탁회사, 상호저축은행, 상호금융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)의 총합

자료 한국은행

〈그림〉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과 증감률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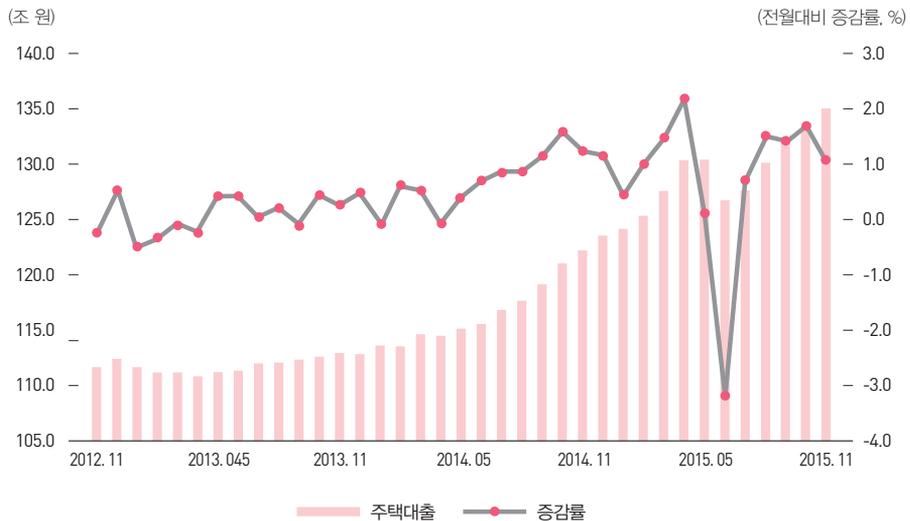


자료 한국은행

〈그림〉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

11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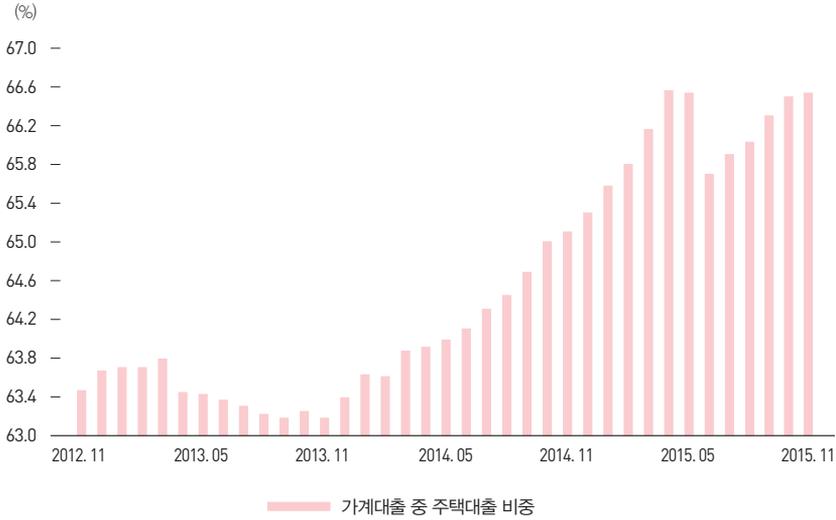
- 은행 가계대출(203조 491억 원)은 전월(201조 1,293억 원) 대비 1.0% 증가
- 그 중 주택대출(135조 430억 원)은 전월(133조 6,987억 원) 대비 1.0% 증가하였고,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 비중은 66.5% 차지



주 말잔 금액,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 이외의 대출의 총합

자료 한국은행

〈그림〉 서울의 은행 주택대출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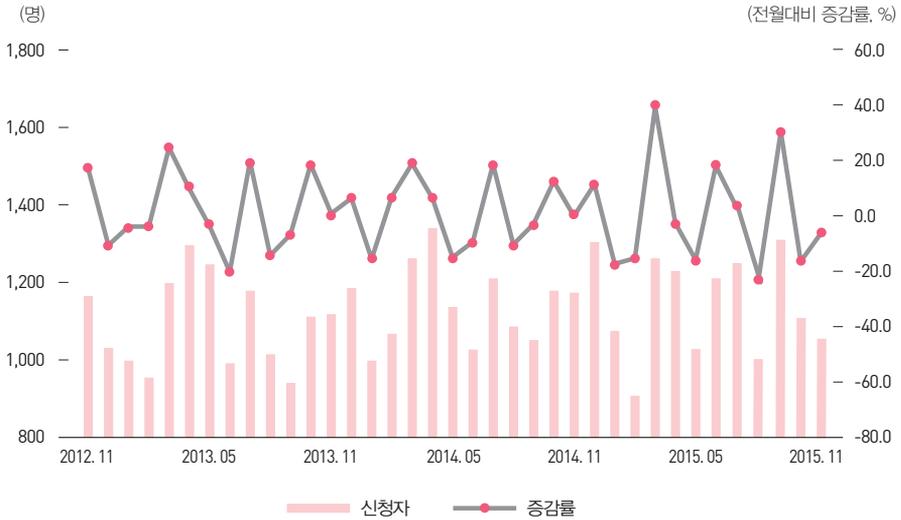


자료 한국은행

〈그림〉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

11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 대비 감소

- 서울의 11월 개인파산 신청자(1,067명)는 전월(1,126명) 대비 5.2%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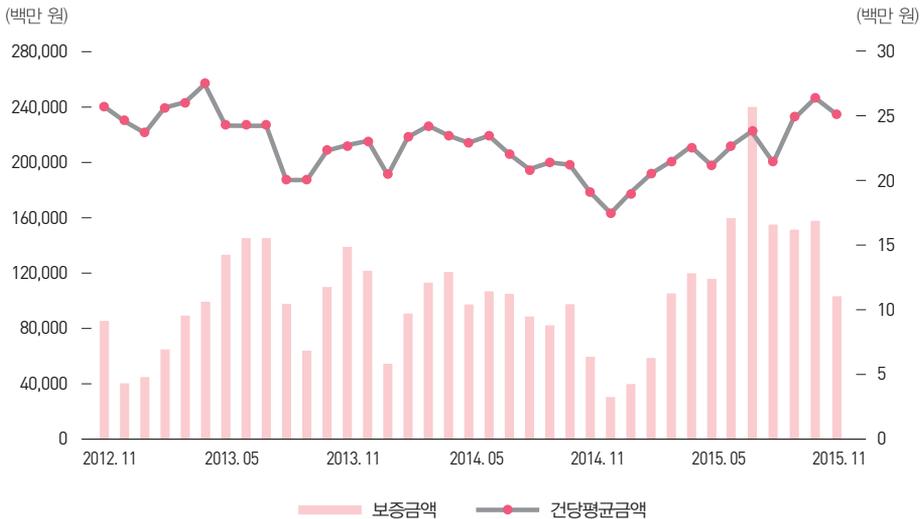
자료 대법원

〈그림〉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

신용보증

서울의 11월 보증금액, 보증건수, 건당 평균지원금액 모두 전월 대비 감소

-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11월 중 1,027억 원 / 4,073건
- 보증금액과 보증건수는 각각 전월 대비 34.6%, 31.5% 감소, 전년 동월 대비 각각 67.0%, 26.2% 증가
- 건당 평균지원금액(2,520만 원)은 전월 대비 4.5% 감소, 전년 동월 대비 31.9% 증가



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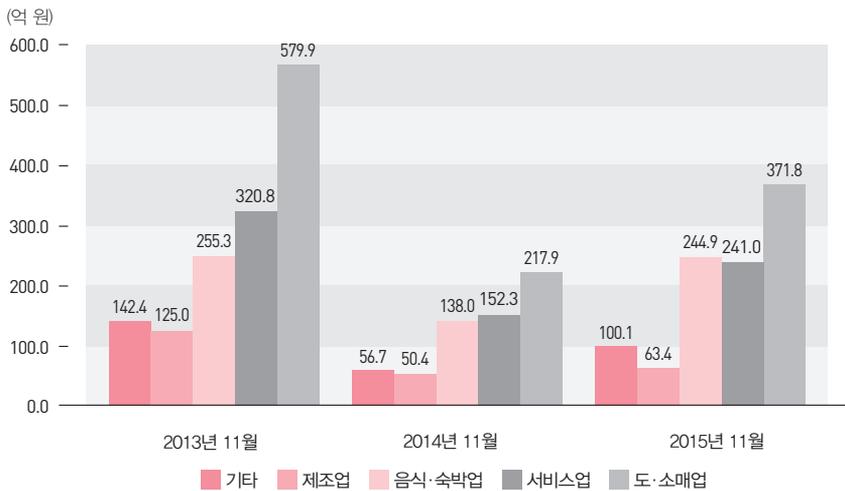
(그림) 서울의 보증금액과 건당 평균지원금액 추이

신용보증공급이 전 업종에서 전월 대비 감소한 반면 전년 동월 대비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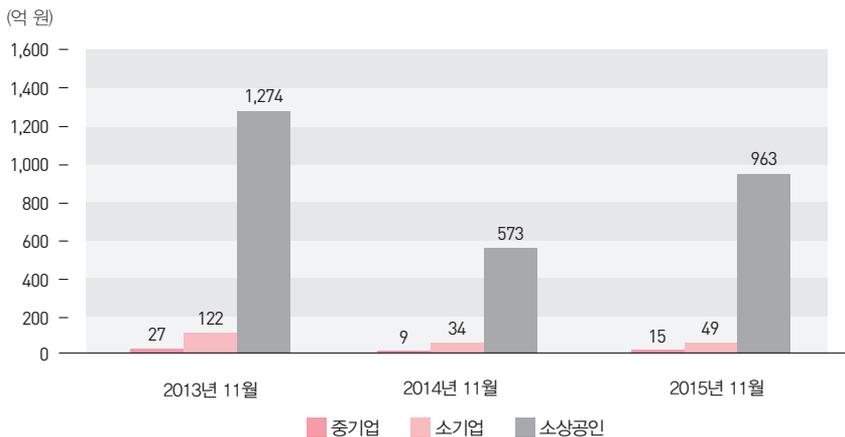
- 신용보증공급 비중은 금액 기준 도·소매업(36.2%), 음식·숙박업(23.8%), 서비스업(23.5%), 건수 기준 도·소매업(34.5%), 서비스업(27.4%), 음식·숙박업(22.5%) 순임.
- 도·소매업의 보증지원 금액은 전월 대비 34.2% 감소한 371.8억 원, 전년 동월 대비 70.6% 증가, 보증지원건수는 1,404건으로 전월 대비 37.1% 감소, 전년 동월 대비 3.6% 증가
- 음식·숙박업(244.9억 원), 서비스업(241.0억 원), 제조업(100.1억 원) 보증지원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77.4%, 58.3%, 37.7% 증가, 전월 대비 각각 33.5%, 37.8%, 37.9% 감소

소상공인, 소기업, 중기업 보증지원이 전월 대비 감소한 반면 전년 동월 대비 증가

-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68.1% 증가, 전월 대비 34.1% 감소한 964억 원으로 전체 보증금액의 93.7%를 차지. 소상공인 보증지원건수는 전체의 97.4%인 3,967건
- 소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45.8% 증가, 전월 대비 33.5% 감소한 49억 원으로 전체 보증금액의 4.8%를 차지. 소기업 보증지원건수는 전체의 2.3%인 93건
- 중기업에 대한 보증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76.0% 증가, 전월 대비 56.8% 감소한 15억 원으로 이는 전체 보증금액의 1.5%를 차지. 중기업 보증지원건수는 전체의 0.3%인 13건



〈그림〉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



〈그림〉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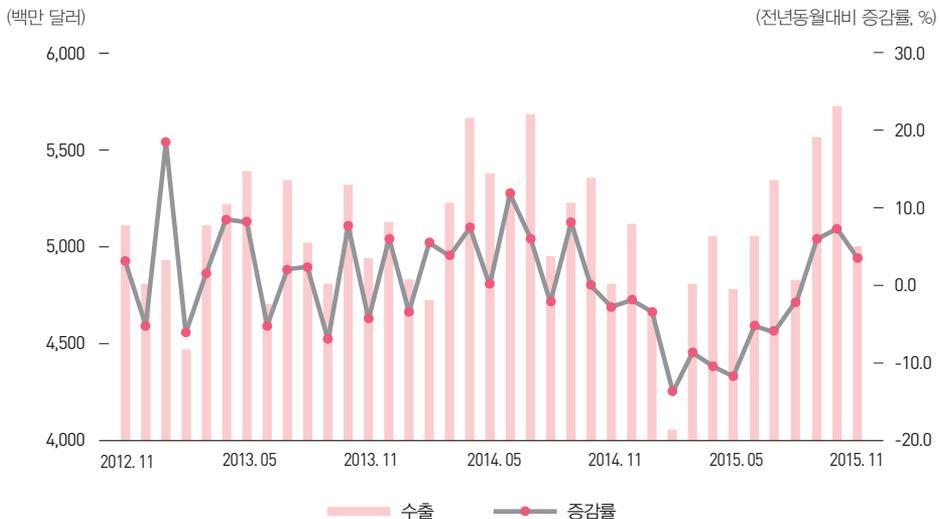
수출입

서울의 1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,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

- 서울의 수출은 50.2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4.1% 증가하였고, 수입은 103.4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8.4% 감소
- 전국의 수출은 443.2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4.9% 감소하였고, 수입은 340.6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월 대비 17.6%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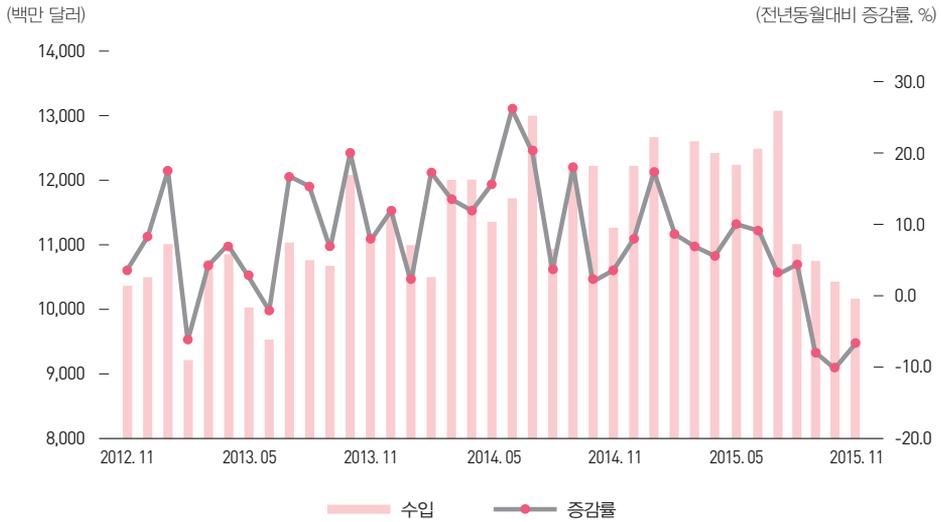
서울의 11월 수출 1순위는 무선통신기기, 수입 1순위는 원유

- 서울의 품목별 수출은 무선통신기기(920백만 달러)가 가장 많고, 다음으로 자동차부품, 반도체, 합성수지, 편직물 순임. 무선통신기기 수출대상국은 주로 중국(281백만 달러), 미국(266백만달러)인 것으로 나타남
- 서울의 품목별 수입은 원유(966백만 달러)가 가장 많고, 다음으로 무선통신기기, 반도체, 석유제품, 자동차 순임. 원유 수입은 전월 대비 126.2% 증가하였으며, 주로 쿠웨이트(347백만 달러), 이라크(206백만 달러)로부터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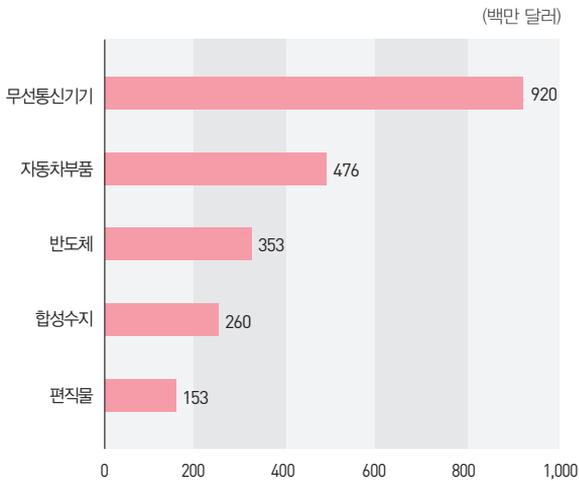


자료 무역협회

〈그림〉 서울시 수출액과 증감률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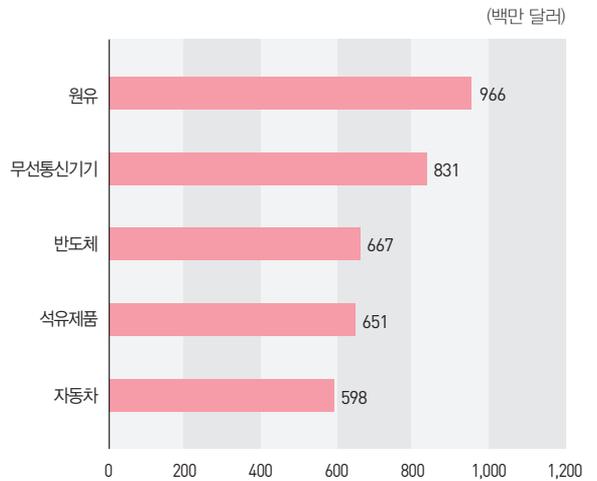


〈그림〉 서울시 수입액과 증감률 추이



자료 무역협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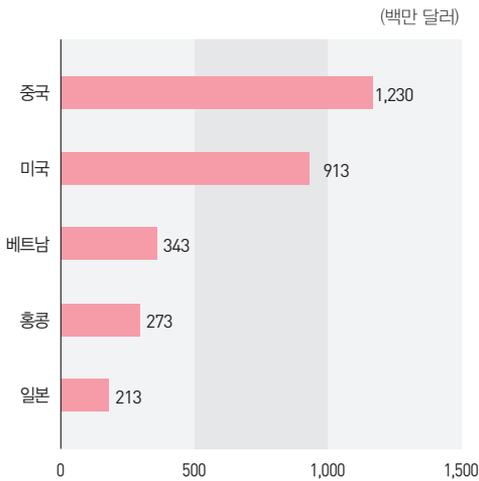
〈그림〉 11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



〈그림〉 11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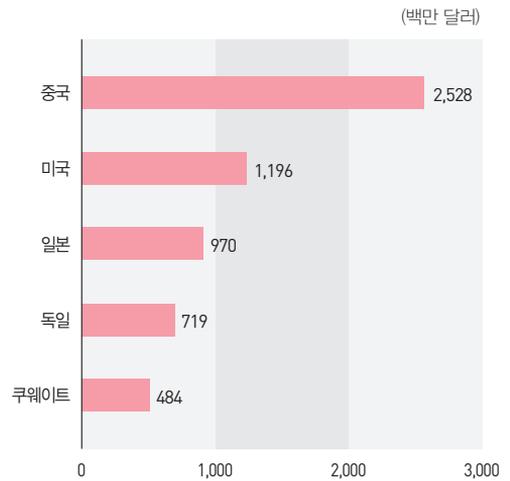
서울의 11월 수출·입 1순위 상대국은 중국

- 서울의 국가별 수출은 중국이 전년 동월 대비 3.4% 감소한 1,230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, 그 다음으로 미국, 베트남, 홍콩, 일본 순임
- 대미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50.3% 증가한 913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음
- 서울의 국가별 수입은 중국이 전년 동월 대비 9.2% 감소한 2,528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, 그 다음으로 미국, 일본, 독일, 쿠웨이트 순임
- 쿠웨이트로부터 원유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387.0% 증가, 높은 증가폭을 기록하며 새롭게 순위권에 진입



자료 무역협회

〈그림〉 11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



〈그림〉 11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

자료출처

자료출처

- 경인지방통계청, 『2015년 11월 서울시 산업활동동향』
- 경인지방통계청, 『2015년 11월 서울시 고용동향』
- 경인지방통계청, 『2015년 11월 서울시 소비자물가동향』
- 국민은행연구소, 『2015년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』
- 대한민국 법원, 법원통계월보, 『<http://www.scourt.go.kr>』
- 부동산114, 『2015년 11월 서울시 아파트 평당매매가격』
- 부동산114, 『2015년 11월 서울시 아파트 평당전세가격』
- 서울신용보증재단, 『2015년 11월 신용보증동향』
- 서울특별시, 서울부동산정보광장, 『<http://land.seoul.go.kr/land>』
- 통계청, 『2015년 11월 산업활동동향』
- 통계청, 『2015년 11월 고용동향』
- 통계청, 『2015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』
- 통계청, 통계정보시스템, 『<http://kosis.kr>』
- 한국무역협회, 무역정보네트워크, 『<http://stat.kita.net>』
- 한국은행, 경제통계시스템, 『<http://ecos.bok.or.kr>』

